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제8호

발행일 : 2016. 12. 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간증>

이영선 집사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매섭죠!

추운 날씨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으샤으샤” 힘내세요. 문서위원회의 한분께서 저에게 이달의 라이프지에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해야 될 일~~ 빨리 쓰고 마음 편히 지낼 생각에 입은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막막함에 거리를 걸을 때에도 밥을 지을 때에도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압박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도시절 때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체험한 첫 경험이었지요.

우리 연우가 6-7세 때 힘든 고난이 연우와 우리가족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첫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연우가 잠이 든 후 11시 30-12시 정도가 되면 어김없이 잘 자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도 놀라 매일 밤 안아주고, 업어주고, 애를 써 봐도 쉽사리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30여분정도 진을 다 뺀 후에 다시 잠을 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우가 다른 날과 다르게 갑자기 잠에서 깨 울면서 거실을 무당이 곳을 하며 뛰듯이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기에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연우를 꼭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연우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우리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어느 정도 진정되어져 가는 연우에게 “연우야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상황을 사모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려 보았더니, 집에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낮에도 연우가 잠들기 전에도 늘 잊지 않고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성도인 저로서도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연우가 잠을 깨지 않고 편안하게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에겐 너무도 크나 큰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우도 뭘 아는지, 제가 깜박하고 찬양 트는 것을 잊는 날이면 “엄마 찬양 틀어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아이인 연우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에 위대함을 알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 저는 멀다면 먼 순성에서 당진순복음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은 아니고요. 이번 여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장미가 장염으로 인해 열린 내과에 입원 중이어서 심방을 갔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유방초음파 검진을 한다는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해 보고 싶었던 차라 예약을 하고 이른 아침 검진을 하였는데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말씀을 의사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혹이 하나 있는데 큰 병원에 가셔서 조직검사를 빨리 받아보세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라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조카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에 예약을 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주대 의사 선생님께서도 혹 모양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결과가 나오는 7일 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도 요청했고,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불안함은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세상말로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킴이 알바를 낮 11시~2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늘 나가던 1시 기도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많이 하는 봉사도 아니었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하였지요. 저에게 위기가 찾아오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섬유종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저 이 일 그만두고 기도모임도 잘 나가고, 봉사도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 기도를 한 후 마음이 조금은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구역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두 손을 놓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입에서도 말아 나오지 않아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암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며 웃음 띤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혹을 내시경으로 제거한 후 아무 일 없는 듯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바로 학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또 기도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신앙의 체험 많이 하셨지요.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힘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이영주 집사님



1. 고향, 가족사항,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은?
고향은 인천이고요, 2남 3녀 중 셋째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순둥이였어요. 엄마 말씀이 어려서부터 부모말씀 잘 듣고 특히 아버지에게
착한 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 나의 첫사랑 이라면~
첫 사랑이라고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군인 아저씨와 펜팔 그거였던 것 같네요.
3.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은요~ 눈물이 많고 때에 따라선 고집도 있고 남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인 듯 하네요.
4. 남편자랑
남편을 만난 지 28년 되었는데 인성이 참 좋은 남편, 자녀들한테 사랑을
아주 많이 주는 남편,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더라고요.
5. 아이들 자랑
하나님의 자녀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16 가을심방을 드리고 …….
시편 23편 1절 -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2017년은 더욱 더 영적인 생활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에 일꾼으로서 살아갈 것이며 지금보다 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에 합당한 생활로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 나에게 구역식구란?
온유구역식구는 나에게 힘이요, 영적생활의 동반자입니다.
8. 내게 섬김이란 (순종) 이다.
9. 구역장 삼년이면 집을 산다는데 …….
아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입니다.

10. 내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
최은주 집사님요. (구역식구로 있을 때 집사님의 기도, 말씀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후에도 쪽~~ 그럴 겁니다.)
11. 방언에 대하여
사모합니다. 그런데 때론 겁이 나요. (영적인 것이 문제죠)
12. 2017년 믿음 안에서의 내 소망
물론 자녀들입니다. 각자 처해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과 남편 구원, 보다 더 나은 나의 신앙 성장입니다.
13. 내 솜씨자랑 (요리 등등)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요리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요리해서 나누어 먹는 것도 좋아요.
14. 내가 바라는 머느리상, 사위상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 서로 한마음 한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면 O.K입니다.
15. 내가 하나님을 느꼈을 때 (가장 최근의 사건)
기도에 응답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라도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운전)
16. 명품 백 명품 옷에 대하여~
하나쯤 소유하고는 싶지만 욕심은 없네요.
17. 가족여행을 해외로 간다면 꼭 가고 싶은 곳은? 그리고 그 이유는요?
호주, TV에서만 보았던 아름다운 곳을 눈으로 보고 그 곳 공기를 마시며 온가족이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18. 내 인생에 운전이란?
지금 도전중인데요, 면허 취득하면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누가 마음 놓고 타 줄지 모르겠지만요^^)
19. 내 손주들이 찬양대에 설 때쯤 나의 모습을 스케치해주세요~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막내 장미가 찬양단에 설 때면 가슴이 벅차며, 기쁘고 눈물이 나요.
20. 나는 이 찬양에 감동했다 하는 찬양이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찬양대회





2016.11.20.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릴 수 있음에 행복해 하던 날...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맛있는 김장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제철 음식>

12월

배추

11,12월

배추 잎을 찢어 보면
고소한 맛이 나고 결구의
상태가 둥근...

무

10,11,12월

잎이 푸르
고 단단
하며
잔뿌리가
많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과

10,11,12월

껍질에 탄력이 있고 껍칸
느낌이 드는 것이 좋다.
손가락으로 톡겨...

대하

9,10,11,12월

몸이 투명하고 윤기나는
것과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다.

한라봉

12,1,2,3월

한라봉은
껍질이 얇은것이 당도가
높다. 껍질이 아주...

유자

11,12월

껍질이 단단하고 울퉁
불퉁한 것, 상처가 없는
것이 좋다.

늪은호박

10,11,12월

크기가 매우 크며 물체의
윤기가 있고 담황색을 띠
는 것이 좋다.

굴

9,10,11,12월

비교적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이
껍질이...

석류

9,10,11,12월

들어보았을 때 무겁고
선명한 붉은색을 고른다.
외피가 단단하고...

아귀

12,1,2월

살이 단단하고 몸의 색이
검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른다.

과메기

11,12,1월

통통하고 살이 단단한
것을 고른다.

가리비

11,12월

조개 껍질에 광택이 있어
아 하고 파르스름한 빛을
내는 것이 좋다.

굴

9,10,11,12월

살은 파자가 뚜렷하게 서
있는 것, 둥그스름하고
통통하게 부풀어...

랑어

9,10,11,12월

너무 큰 것도 맛이 없고
2kg 정도의 것이 적당하
다. 전체적으로...

명태

12,1월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며 내장이
흘러나오지...

꼬막

11,12,1,2,3월

껍질이 깨지지 않고,
물결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한것을 고른다.

도마

11,12,1,2,3월

몸은 길둥글고 납작
하며 몸빛은 황색, 홍색
, 회색 등이다. 손으로...

홍합

10,11,12월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나며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하다.

삼치

10,11,12,1,2월

살이 부드럽게 느껴지
는 것은 파하고 배와 몸
전체가 단단...

맛있는 제철 음식 먹고 건강한 신암 생활합시다.^^

<새가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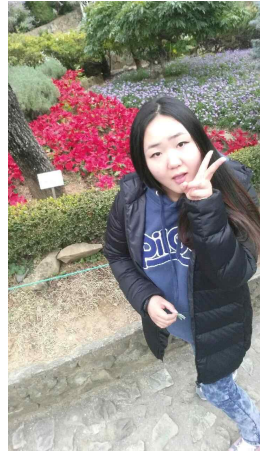
조은혜 성도

아장아장 넘어질듯 아슬아슬하게 걷는 예쁜 아기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매가 누구일까~ 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달엔 우리 조은혜 성도님의 여동생 **조은혜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올해 26살이시고 남편과 2살 된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요~ 이번에 한성필하우스로 이사하여 더 예쁜 보금자리를 꾸미셨다네요^^ 축하드려요~

이전엔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작다보니 주일학교가 없었대요. 민준이의 신앙이 염려되었는데 언니의 권유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민준이의 신앙을 키워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셨던 당사를 회상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오랫동안 다녀온 교회처럼 낯설지 않고 포근하였다고 말씀하시며 특히 교회 등록 전부터 따뜻하게 해주신 이종희 구역장님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상도 좋으신 데다 고민스런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손 내밀어 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구역예배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쑥쑥 들어오며 재미있고 은혜스럽다며 구역장님 칭찬을~~. 저도 같은 구역장 입장이라 이종희 집사님이 무척이나 부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가을대심방에 ‘성장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받으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 은혜 받으셨대요. 본인에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라 더 좋으셨대요. 지금처럼 편하게 대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 고백하시며 남편과 아들 민준이의 기도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형부처럼 열심과 열정과 순종의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이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십시오!



주일 아침이면 성전 입구에서 제일 먼저 인자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 모두 아시죠? **이영길** 장로님이십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언제나 항상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신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집안 곳곳의 사정을 다 알아서 살피듯이 장로님은

교회 이곳저곳 살펴보고 고치시고 채워주시고

자잘하고 굵은 일들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해결 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같으시죠!

하얀 백발이 정말 멋지시고 청년처럼 일하시는 장로님께서

중식 당번 때는 쟁반 옮기는 일을 서슴치 않고 술선수범 하시는

것은 젊은 남자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로님! 저희들 곁에서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계셔주세요~

장로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단 이 란 ?

이단(異端)은 보편적으로 정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총칭한다. 종교, 철학, 정치학, 과학, 예술 등 다른 분야에서 권위있는 의견이나 이론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성경에서 말한 이단이란?

[갈 5:19-21]

-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벧후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딤후 3:9-11]

-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 사이비의 특징

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공통점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 부인, 실패로 취급하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타력구원)보다 자신(자력구원)의 행위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죄의 문제 해결을 율법이나 선행,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비유풀이 공식화는 세뇌작업의 도구이고, 진리를 비진리로 진짜를 가짜로 둔갑시키는 도구이다. 결국 비유풀이 공식화는 사단 마귀의 지옥 초대장이다.
5. 성경공부라는 명분으로 암세포를 주입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에 지식이 더해진다는 즐거움 즉 공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쁨, 행복일 것이다. 문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조각된 정적인 인과관계 조작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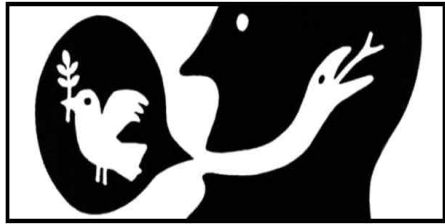
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성도 미혹멘트

한번만! 나 믿지?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
모르는 사람 믿으라고 했던가?)

제발! 한번만

(사기꾼들이 항상하는 말-이번엔
진짜다, 한번만 믿어봐라 - 제발!)



한번만 들어보고 결정해라! “당신은 성인이다” “당신이 들어보면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들어보고 판단하면 된다.
“후회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 평가한다.
우리 모두가 조금 겸손 더 겸손했더라면

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 된 성도들의 가장 큰 불행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미혹된 성도들과 추종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는 것이다.

시간과 여유를 뺏어버린다. 인생에서 시간을 뺏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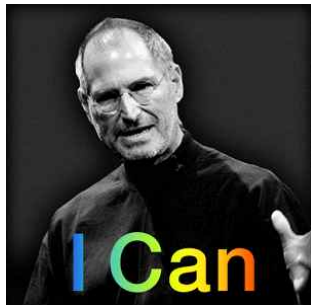
우물이 세상이라고 세뇌시켜서 우물 안에서 살도록 만든다.

성과물, 목표설정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력을 착취한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다.

스티브잡스

스티브잡스는 1955년에 태어나 2011년 56세의 일기로 췌장암으로 타계했습니다. 잡스는 췌장암에 걸렸으나 그 암 종류는 수술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수술을 거부 했습니다. 잡스가 수술을 거부한 이유는 그의 신체를 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은 잡스와 이 문제를 놓고 수차례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술 대신 영적 치료와 대체의학 같은 것들을 의존했다고 합니다.

잡스는 결국 9개월 후에 가족과 친구들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암 세포가 그의 몸에 퍼진 후였습니다. 잡스는 암 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그의 질병의 심각성을 경시했고 결국 수술을 늦춘 그의 결정에 대해 후회했다고 합니다. 스티브잡스가 췌장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이하 스티브잡스의 말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돈)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 일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 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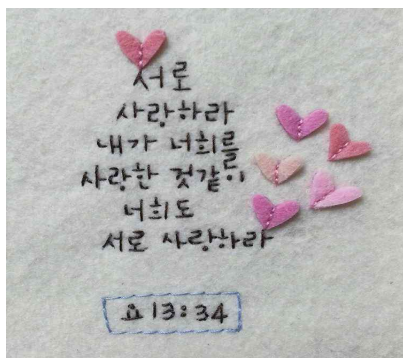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요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일까?

그건 "병석" 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 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는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시사용어 Briefing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스마트폰, PC등의 첨단 디지털기기에 뇌가 지나치게 익숙해진 나머지 현실에 무감각 무기력해지는 현상. 팝콘처럼 크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을 말한다.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1886년 스위스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 이라고도 한다.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

PC나 노트북,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기법. 컴퓨터 법과학이라고도 하며, 사이버범죄 수사에 이용된다.

블록체인 (Block Chain)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용어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사람들이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한다.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은 집단의 지적능력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호 협동의 과정 또는 결과를 말한다. 위키피디아 등의 예가 있다.

유나메일러 (Una Mailor)

편지를 이용한 폭탄 테러. 신분을 숨기고 특정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규모의 이메일을 보내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테러를 말한다. 폭탄테러범 유나버머에서 유래됐다.

어나니머스 (Anonymous)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해커 집단. '익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3천명 정도로 추정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슬로건은 '우리는 군단이다'

룰즈섹 (LulzSec)

어나니머스의 분파로 알려졌다. '크게 웃다'를 뜻하는 LOL과 보안을 뜻하는 Security의 합성어로 보안을 비웃는다는 의미. Sony의 네트워크를 공격한 바 있다.

2016 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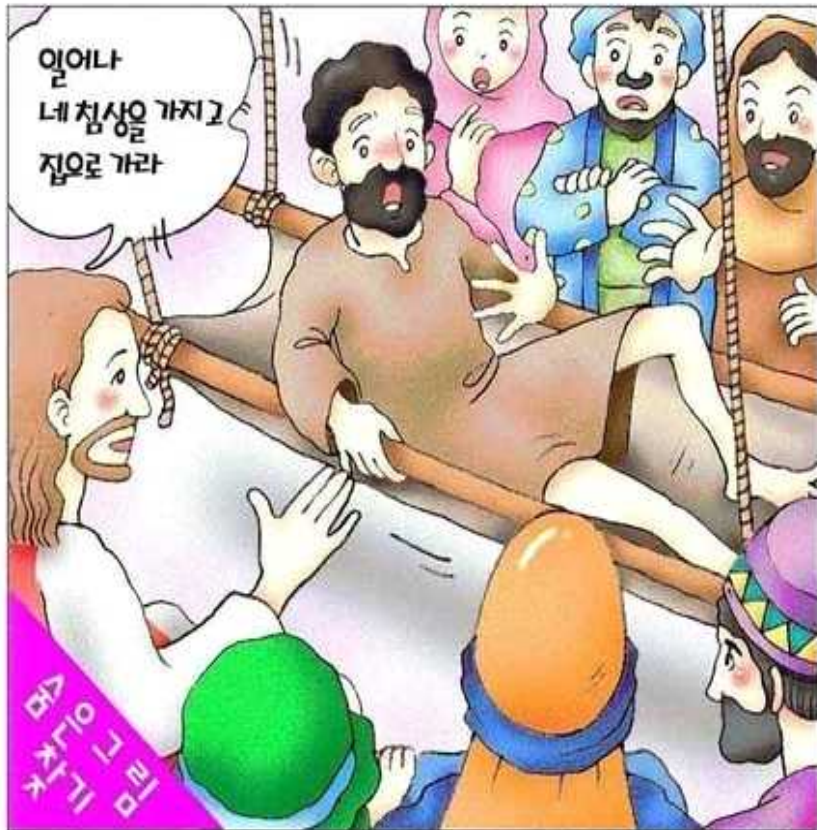
2016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2016년 11월 17일에 있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수능이라고 하면
부모님에서부터 학생들까지 수능일이
오는 것을 힘들여 준비하고 수능을 보는
하루를 위해 고3이라는 1년을 오롯이
투자했었다. 하지만 수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예전처럼 오롯이 수능에만
올인 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



수능당일 훈훈한 소식에서부터 안타까운 소식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한 학생은 재수생인데 도시락 가방안에 어머니가 깜박하고 넣어둔 핸드폰으로 인해 1교시 시험을 치루고 퇴실당한 학생부터 시험지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험문제를 한두 문제 풀고 퇴실당한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남긴 사연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훈훈한 사연들이 전해졌다. 성남과 남양주에서는 수능 당일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택시 운행을 해주는가 하면 한 경찰관은 시계를 놓고 온 학생을 위해 자신의 시계를 풀어주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난 수능 날 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쪽에서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보호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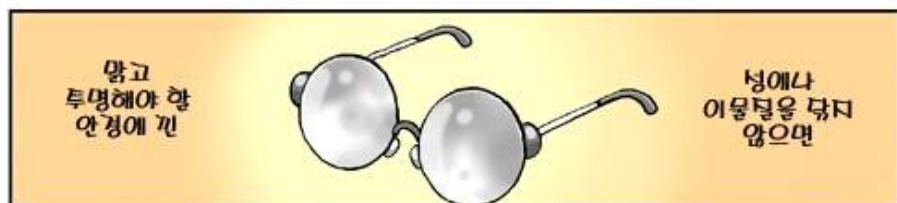
성경숨은그림 찾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마태복음 9장 1-8절)
(숨은그림 : 화분, 거위, 비, 신발, 계란)

* 영안을 닦자!

- essay.145 -



*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깨끗이 닦자!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한다.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날은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기념일로 역법에 의한 날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은 기념한다.

Xmas 또는 X-mas는 영어의 X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첫글자 X(키)에 mas를 붙여서 쓴 것이다. 따라서 영어권에서는 관용적으로 '엑스마스'라고 읽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크리스마스'로 읽는 것이 맞다.

현재는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교회에서 부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축제이자 교회력 절기인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일 동안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킨다. 대한민국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의 명칭은 '기독탄신일(基督誕生日)'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양말을 걸어두고 선물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 풍습은 4세기에 동로마 제국 소아시아(지금의 터키) 지역의 성 니콜라우스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니콜라우스는 한 가난한 집의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올리는 딱한 사연을 듣고,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벽난로에 걸려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반화되었다.

산타클로스(Santa Clause)는 성탄 전날 밤에 착한 아이들(good children)의 집에 선물을 가져다주는 전설 속의 할아버지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집 뜰이나 방에 장식하는 나무다. 1605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14세기 종교가곡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듣는 음악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저 들 밖에 한밤중에와 같은 노래가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친구나 친척들 사이에서 서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문구를 전하기 위해 많이 쓴다. 보통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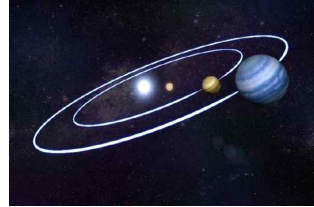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기도 한다.

(성경) 우주 과학자의 의문

메릴랜드 우주항공사에서는 컴퓨터로 십만년 전까지를 소급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노라하는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조사를 하여도 해결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만년 동안 24시간의 오차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10만분의 1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충돌 사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텝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타이피스트가

“소장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추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 돌아온 소장의 귀에는 아까 그 타이피스트의 말이 마음에 자꾸만 메아리쳐 몰래 여호수아서를 읽어 봅니다.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소장은 조용히 컴퓨터로 그 당시의 시간으로 되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거기서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장은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나머지 40분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조사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열왕기상 20장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보장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징조가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원을 중심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중에 10도란 정확히 40분이었습니다.

소장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확무오성에 한 과학자가 경건히 무릎을 꿇습니다.”

한 이름 없는 타이피스트가 우주의 대과학자의 문제를 풀어 준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화>

그렇지만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거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 주일 가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되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성경>

성경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마술을 부리는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가 열이 많고 아프면 성경책을 그 머리맡에 두는 부모도 있다.
또 군대 가는 아들에게 포켓 성경을 주면서 항상 옆에 놓고 다니라고 이르는 부모도 있다. 마치 부적처럼…….

6.25때 전선에서 싸울 때 성경책을 넣고 다니다가 탄알이 책에 박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모양이다.

아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적이 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성경책이 아니라 방탄조끼를 몇 겹으로 끼입어도 살 수 없다.

성경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까지도 쪼개고 나누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선한 청지기

김미진 집사

가파른 언덕 위
내가 가야 할 나의 아버지 집
기쁨과 사랑도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까지도
모두 아버지 앞에 쏟아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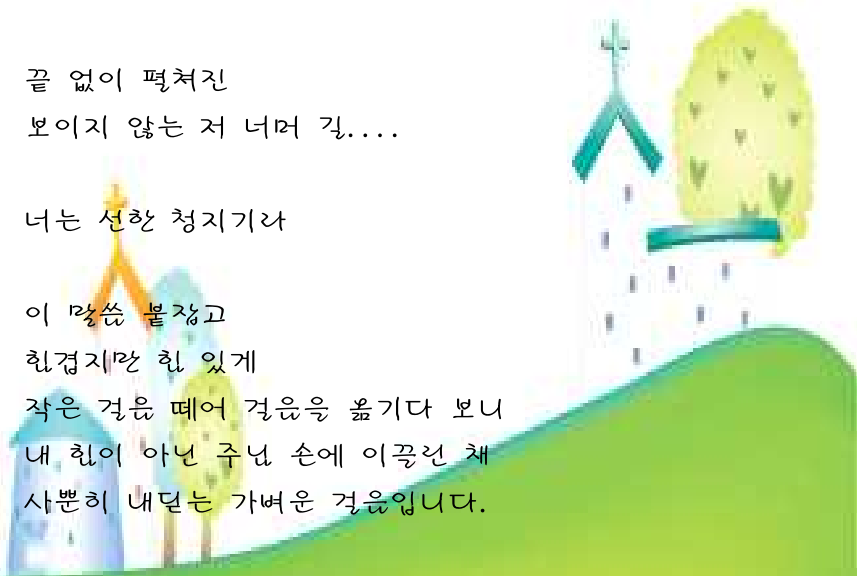
내 마음은 접어 둔 채
주님 이끄시는 대로
어제를 살았고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끝 없이 펼쳐진
보이지 않는 저 너머 길....

너는 선한 청지기라

이 많으신 볼재고
힘겹지만 힘 있게
작은 걸음 떼어 걸음을 옮기다 보니
내 힘이 아닌 주님 손에 이끌린 채
사뿐히 내딛는 가벼운 걸음입니다.

어제를 살 때도 오늘을 살 때도 그러했듯
내일을 또 얹치 없이 주님께 맡깁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울동단 헌신예배 / 12월 4일 p.m 6:00
2. 목회탐방 / 12월 5일~9일
3. 제직세미나 / 12월 15일 p.m 7:00
4. 평신도 헌신예배 / 12월 18일 p.m 6:00
5. 성탄축하제 / 12월 24일 p.m 6:00
6. 성탄절예배 및 연말시상 / 12월 25일 a.m 11:00
7. 졸업예배 및 장학금수여 / 12월 25일 p.m 6:00
8.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 p.m 11:30

◎ 이달의 교우소식

1. 장막이사 / 박봉녀성도 - 12월 2일 힐스테이트(송악읍 기지시리)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성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채운동)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